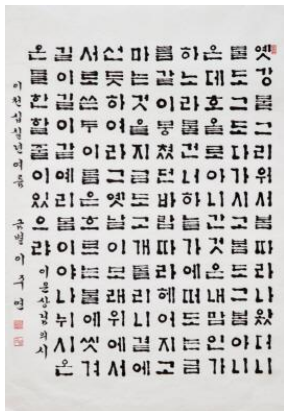


[제2017-64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도자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 쪽	
배포일시	2017. 08. 18(금)		담당자	최희선(323-936-3014)	

제27회 미주한인서예협회전



이주연 / 이은상의 옛강물



홍봉자 / 매화 II



황은지 / 어머니의 편지



왕혜경 / 반야심경

- ▶ 전 시 명 : 제 27 회 미주한인서예협회전
- ▶ 일 시 : 2017.8.30(수)-9.14(목) / 개 막 식 : 2017.8.30(수) 6:00pm
- ▶ 한국문화가 있는날 행사 : 2017.8.30(수) 7:00pm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예 약 : www.kccla.org 혹은 323-936-3014
- ▶ 문 의 : LA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한국서예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제26회 미주한인서예협회(회장 전정웅) 전시를 8월30일(수)부터 9월14일(목)까지 LA문화원 갤러리에서 2주간 개최할 예정이다.

1990년 창립한 미주 최대 동포예술 단체그룹 미주한인서예협회의 이번 전시에는 42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서예의 기본 서체인 전서, 예서, 초서, 해서, 행서체를 비롯하여, 멋스럽게 표현된 한글과 현대서, 그리고 수묵화, 한국화 등이 전시되어 볼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이번 전시 오픈식에는 ‘한국문화가 있는날: 글을 배우다’와 함께 진행을 하여, 오픈식에 참석한 분들 중 원하는 분들의 이름을 한글 서예로 적어 줄 예정이다. 재미동포 2,3세, 그리고 외국친구들이 함께 관람하면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예는 동양의 대표적 전통예술로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발전되어 왔으며, 그러한 역사가 말해주듯이 서예작품을 통하여 우리는 옛 선조들의 창조적인 정신세계와 여유로운 삶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특히, 한글을 중심으로 전통과 새로운 현대서예가 어우러져 있는 독특한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한국문화가 있는날 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한글을 모르는 분들에게 한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언급했다.

또한, 미주한인서예협회 전정웅 회장은 “매년 하는 전시이지만 항상 어렵습니다. 좋은 글과 좋은 그림들을 미현지인들과 미주 동포들에게 폭 넓게 소개하고 싶어서 회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친구들에게 한글로 이름을 적어주어 한글과 서예를 함께 알리고자하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뜻깊은 시간을 나누

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번 전시 개막식은 2017.8.30(수) 저녁 6시이며, 이어서 “한국문화가 있는날; 글을배우다” 프로그램이 7시에 시작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323-936-3014 혹은 exhibition@kccla.org로 문의하면 된다.